

나의 봄 나라

마리안굿맨갤러리 파리, 화가 윤종숙 개인전

IMAGE LINK 윤종숙

2025 / 04 / 01

김해리

마음의 랜드스케이프를 그리는 화가 윤종숙(1965년생). 그는 동양과 서양,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서 기억의 정경을 불러낸다. 부드러운 산등성이, 굽이치는 강물, 보드라운 바람, 따사로운 햇살... 작가는 충청남도 온양의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다. 부친의 영향으로 동양화와 서예를 배웠다. 1995년 독일로 이주해 수묵의 선을 표현주의에 접목했다. 밑그림 없는 즉흥적 붓질로 내면의 감흥을 표출했다. 올해로 타국에서 지낸 지만 30년. 그러나 윤종숙 그림의 시공은 언제나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다. 자연을 벗 삼던 아득한 추억 한 토막을 지금, 여기에 펼친다. 대형 캔버스와 벽화작업이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 거대한 색면추상을 전시장에 가득 채워 관객을 마음속 고향으로 초대한다. 윤종숙의 프랑스 첫 개인전 <Far East>(3. 15~5. 10)가 마리안굿맨갤러리 파리에서 열렸다. 대형 신작 10점과 구아슈 작업 4점을 공개했다. 그에게 '극동'은 시간과 공간, 몸과 정신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첫 숨을 터트린 곳, 아침 해가 떠오르는 나라. 작가에게 동쪽은 우주 만물이 태어나는 시원의 장소이다. 생명이 움트는 봄은 충천연색으로 피어오른다.



<Asan> 캔버스에 유채 150×170cm 2024

동쪽 하늘 곱들대는 첫새벽. 보오얀 안개가 도돌실 넘어온다. 따끈한 연분홍 햇살이 방긋, 봉긋. 밤이슬 머금은 들판을 아름드리 어루만지면 온 동네 별 냄새 솔솔...



<The Good Earth> 캔버스에 유채 160×130cm 2025

창공을 물들이는 연노란 아침결. 한갓진 뭉게구름이 산허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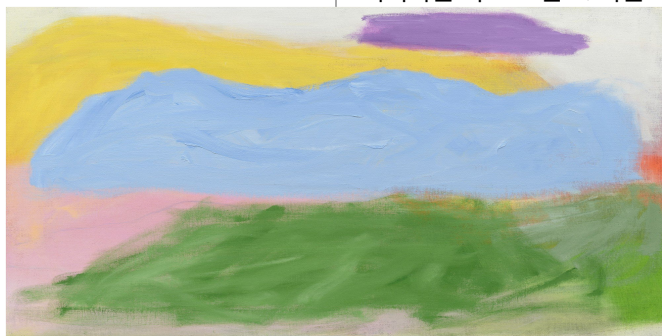
<White Lake> 캔버스에 유채 170×150cm 2025

겨우내 굳은 호수가 사르르 초원에 스민다. 개나리는 봄 념을
고개를 색으로 마중하고, 진달래가 그 걸음을 향으로 부른다.
달콤한 꽃내음 지천을 흘리나니. 만춘 낙원에 그대, 어서 오소서.



<High Sun> 캔버스에 유채 230×380cm 2024

만동의 언바람, 하지의 띄약별, 추풍의 소슬비 모두 오가는 봄의
시간. 사절기 오색을 오롯이 만나리. 바람 마차 타고 해후를
약속하는 라스트 댄스. 나는 이 노래 부르며 네게로 간다.



<Purple Cloud> 캔버스에 유채 110×140cm

품벌레 걸음마다 연둣빛 숨결이 트고. 하늘님은 물빛에 어린다.



<Summer> 캔버스에 유채 160×130cm 2025

구름은 은하수 닮아 옛이야기 소근거리고, 하루는 저 너머로....
여남은 추억은 석양의 희나리. 봄은 내 고향. 한 철은 마음에
진분홍 그림자로 드리우니. 하염없이 그리워 그리고, 그렸노라.